“행복·불행은 마음이 쪼개놓은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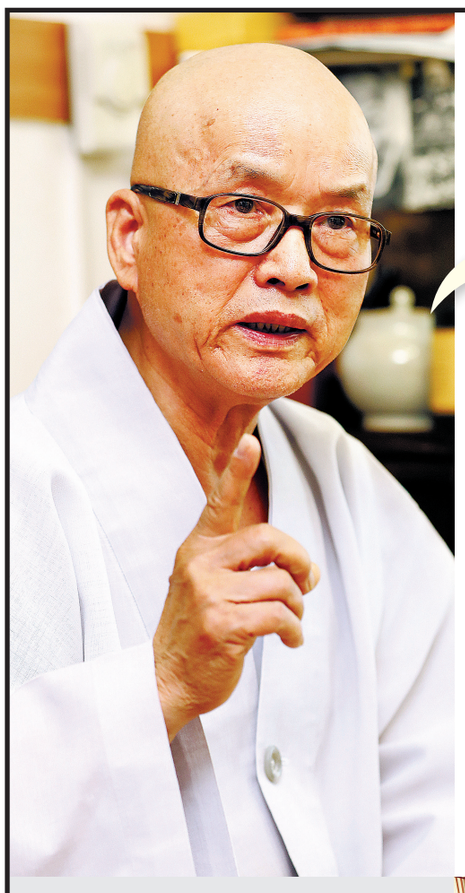
봉축특별대담 : 간화선을 묻다

의정(한국참선지도자협회 이사장) · 각산 스님(참불선원 선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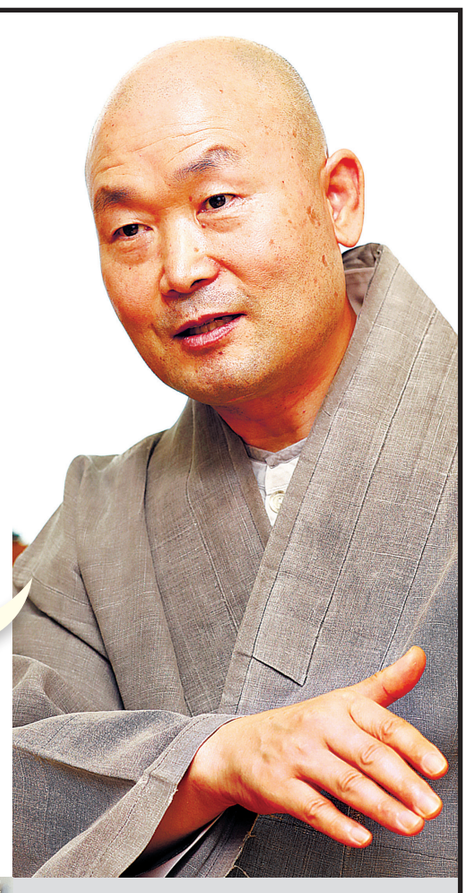
유래 없는 부처님오신날이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상이 힘겹다. 유래 없는 생과 사. 이 무명을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 또 이 시절을 기적처럼 끝낸다 해도 다시 유래 없는 시절이 없으리라 장담할 수 있을까. 이 암담한 시절의 유래가 없듯이 또다시 유래 없는 암담한 시절이 온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의 일이 단지 오늘에서 벌어진 일이 아님을 생각할 때, 이 암담한 시절은 다름 아닌 우리의 내일인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희망의 답을 구해본다. 산중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선지식과 도심 한가운데서 오늘을 겪고 있는 선지식이 한자리에 앉았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5월 13일 경기도 양평 상원사 용문선원에서 의정 스님과 각산 스님에게 물었다. 어지러운 오늘, 이 땅의 불교가 걸어야 할 길과 이 땅의 사부대중이 살아가야 할 오늘을.

〈편집자 주〉



禪은 21세기 정신문화 대안
간화선이 명상계 이끌어야
코로나, 물질만능주의 폐해
선수행으로 극복할 수 있어



참선 · 명상 진면목 간화선
참선지도자 양성 우선과제
코로나, 우리가 자초한 일
행복은 번뇌로부터 나온다

의정 스님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이사장

“서구문명의 이분법적인 사유체계의 한계성 직면으로 동양의 사유 세계에 관심 높아져”



각산 스님
참불선원 선원장

“현재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業 모양 달라지는 일이며, 수행은 삶의 모양도 바꿔줘”

대담=김주일 편집국장 · 정리=박재완 기자

Q. 한국참선지도자협회(이하 협회)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앞으로의 협회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협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십시오.

의정 스님=21세기 정신문화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선(禪)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뜻있는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현재 수좌회 스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각산 스님, 마가 스님 그 외 참선과 명상하는 분들을 많이 영입했습니다. 한국에서 명상이 큰 방향성 없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쪽 관련된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한결같은 생각들은 간화선이 중심을 잡고 명상 전반을 포용해야지만 간화선도 부흥할 뿐만 아니라 명상도 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산업화 되어가는 명상 부분을 포용하는 것이 선의 세계화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도 그러한 맥락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산 스님=현재 협회는 30여 개 단체 스님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심 있는 단체와 스님들이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격을 인정하는 단체기 때문에 앞으로 200여 단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또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코끼리 발자국 안에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간화선이 코끼리의 발자국입니다. 간화선은 모든 수행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수행을 해서 선정을 이루는 수행법이 참선 또는 명상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참선 · 명상의 진면목을 보여준 수행법이 간화선입니다. 여러 경전을 통해 봐도 간화선만한 수행법이 없다고 봅니다. 협회는 실참이 되어있는 스님들을 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Q.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협회의 프로그램 진행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각산 스님=참불선원에서 7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14강좌, ‘참선아카데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선아카데미는 의정 스님과 선원장급 스님들, 재가자가 함께 진행합니다. 그리고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대한민국 명상포럼’을 강남구청 지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Q. 참선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산 스님=필수적으로 참선아카데미 과정을 마쳐야 하고요. 각 단체에서 100시간의 과정을 이수하면 2급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현재 2급 과정을 마친 분들이 약 400명 정도 됩니다. 1급 과정은 2급 과정과 ‘대한민국 명상포럼’을 마쳐야 합니다. 내년 8월 중으로 200~300명이 1급 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협회에서 배출된 지도자들의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정 스님=선이 대중화 되고 세계화 되기 위해선 반드시 좋은 지도자(중간 지도자 포함)가 있어야 합니다. 선원장급 스님들은 각자 소임으로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큰 부분은 수행자 스님들이 맡아주시고 일반적인 선명상 포교는 재가와 승가 관계없이 중간 지도자가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원수좌회에서는 앞으로 승가 위주의 중간 지도자 양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행과 포교를 함께하겠다는 분들을 발굴해서 특별 교육을 통해 지도자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Q. 지도자들이 많이 양성되면 참선 명상이 대중화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의정 스님=선원수좌회에서 세계 30여 곳의 선센터와 명상 센터를 돌아본 결과 선과 명상이 상당히 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붐을 이루기 위해선 많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많은 지도자가 길러진다는 것은 참선과 명상의 저변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명상센터가 3천여 곳에 이릅니다. 그것은 미국이 앞으로 인류의 정신문화까지 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과 명상이 인류 정신문화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는 많은 선명상지도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이를 볼 때 많은 지도자 양성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지도자 양성에 있어서도 세계화라는 과제를 겨냥해서 중간지도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간화선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영어 등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지도자 양성으로 인해 지도자의 저변이 넓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이에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정 스님=인류는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자연환경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 괴로움을 치유하기 위한 정신문화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인류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선과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와 불교의 선이 인류의 정신문명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서구문명의 이분법적인 사유체계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분법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서구문명이 그 한계성에 직면하면서 서구의 문명은 이론화된 동양의 사유체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계 · 정 · 혜’ 삼학에 뿌리를 둔 결이 다른 사유와 깨달음의 불교와 간화선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인류에게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석학들의 입을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Q. 현재 협회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양성되는 지도자(마스터)의 수준은 세계 수준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각산 스님=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생동안 수행에 전념해온 수좌들의 강좌이고, 체험을 포함한 집중 수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1급 과정에서는 〈육조단경〉 〈금강경〉 〈맛지마니까야〉를 통독해야 합니다. 협회는 이론뿐만 아니라 수좌회의 실참에 바탕을 두고 실참 위주로 교육하고 있고, 정혜쌍수를 보기 때문에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의 선, 명상센터들을 많이 보고 오셨는데, 해외의 선 · 명상 관련 마스터(지도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의정 스님=마스터들은 선센터나 명상센터를 찾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지도를 합니다. 때문에 선과 명상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과 명상은 지도자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마음의 법이고 그 마음의 길은 수없이 많은 것이어서 오롯이 한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가본(체험) 사람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길로



불기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남해 제일 관음기도 도량
금오산 향 일 암

사부대중일동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60
☎ (061)644-4742 www.hyangiram.org